

### 제8회 간성초교 총동문회 체육대회



제8회 간성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에서 투호 경기를 하는 모습.

간성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함상옥)는 지난달 28일 모교에서 동문회원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정기입장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 모교발전기금 전달, 대회사, 축사, 교가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가족단위로 투호, 비석치기, 신발 던지기, 배구, 족구, 승부차기를 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근 기자

### 의용소방대연합대 단합대회 개최



고성군의용소방연합대(대장 함동호)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간성읍 장신리유원지 일대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합대회에서는 의용소방대 당면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했으며, 친목도모 및 단결과 화합의 다과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승근 기자

# 지도선 방화미수 50대 구속

## 저도어장 검문검색에 앙심 ... 현존선박방화예비 등 혐의

저도 어장에서 조업하던 중 어업지도선으로부터 검문검색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거진항에 정박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구속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56분께 거진항에 계류중인 어업지도선(강원 203호, 25톤, FRP)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J호(2,99톤, 자망)선장 이모씨(55세, 거진읍)를 현존선박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저도어장에서 조업 중 어업지도선으로부터 검문검색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만취상태로 본인소유 오토바이 연료용 휘발유 0.7ℓ 를 생수통에

담아와 공무원이 근무중인 어업지도선 갑판 위에 뿌리고 라이타로 점화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에 연행됐다.

속초해경은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75조 등을 근거로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 “지역발전 일익 담당 자긍심 충전”

## 제9회 고성군이장단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고성지역 이장단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제9회 고성군이장단협의회(회장 이덕용)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달 30일 고성군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기관단체장 및 5개읍면 이장 등 150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족구대회에 이어 1부 행사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선수대표 선서, 간성읍 이장단의 결의문 채택 낭독 등이 진행됐다.

2부행사에서는 기관 및 단체장과 의 다과회가 열렸으며, 3부 행사로 족구를 비롯해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체육행사가 진행됐다.

고성군이장단협의회 이덕용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장단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그간 이장들의 생업종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9회 고성군이장단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대회에 봉평리 임종혁 이장이 선수대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와 이장 업무수행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했다.

또 “태풍과 산불피해 등 각종 재해는 물론 산불감시, 향락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오늘 대회를 계기로 우리 이장단의 사기진작은 물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자긍심을 충만하게 충전하자”고 당부했다.

박승근 기자

### 4만명의 CEO



# 삼성생명 컨설턴트

삼성생명 CEO는 1명이 아닙니다  
삼성생명에는 금융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4만명의 CEO가 있습니다  
당신도 4만 삼성생명 CEO의 일원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 모집 요강**
-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의 남녀
  - 지 역 : 고성군
  - 선발절차 : 직무설명회 ▷면접▷교육▷등록

삼성고성보험대리점  
☎682-4480

동부·삼성·현대  
손해보험 판매

#### 입사상담

- ◇김양희 010-3382-4011
- ◇김지윤 010-4311-4985
- ◇문순선 010-4769-2868
- ◇원정숙 010-9243-2575
- ◇유수현 010-7169-6594
- ◇유은미 011-376-1752
- ◇이순성 010-4654-5659
- ◇이춘옥 010-8798-4330
- ◇정웅실 010-7681-4309
- ◇정춘자 011-747-6123
- ◇허금녀 016-341-3762